

어명소 차관, 폴란드에서 공항·철도 인프라 수주 지원

- 신공항전권권대표 등 만나 우리기업의 폴란드 교통 인프라사업 진출 지원 -

-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공항·철도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폴란드를 방문 중으로, 현지시각 3월 3일(금) 마르친 호라와(Marcin Horała) 신공항전권대표를 면담하여 폴란드 신공항사업*에 우리나라 공항·철도 기업들의 참여방안을 논의하였다.

* 현 쇼팽 국제공항을 대체하여 동유럽 허브공항 건설하려는 사업(총사업비 약 14.1조원, '28년 개항 목표)으로, 현재 전략적 운영파트너사(공동 투자자) 선정 입찰 진행 중

- 이 자리에서 어 차관은 “동북아 허브공항 육성경험을 가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상호호혜적인 방향으로 사업투자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”면서, “고속철도 팀코리아(국가철도공단, 도화엔지니어링)도 신공항 고속철도 설계사업*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”고 밝혔다.

* 신공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설계도서 및 건설인허가 준비, 용지조사 등 설계사업(약 14.1억불 규모)으로 현재 3~8번 구간 입찰 진행 중

- 아울러, 어 차관은 **재원 확보방안**을 고민 중인 폴란드 측에게, 우리나라가 **교통시설 특별회계**('93년~)를 통해 **공항·철도·도로** 구축을 위한 **안정적인 재원**을 마련한 경험을 공유하였다.
- 이에 마르친 호라와 신공항전권대표는 “폴란드 신공항은 유럽을 넘어 한국 등 동아시아와의 **연결성 증진**을 목표로 하고, 그 추진 과정에서 **한국기업들은 핵심 파트너**”라고 강조하면서, “**한-폴란드 간 교통 인프라 협력**이 더욱 **확대**되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- 이후, 어 차관은 미콜라이 빌드(Mikołaj Wild) 신공항사 사장과 신공항사업 세부 추진전략을 논의하였고, 신공항 연결 도로·철도의 적시 개통을 통해 공항으로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.

- 하루 전날인 3월 2일(목), 어 차관은 라파엘 베버(Raphael Weber) 인프라부 차관을 만나, 양국 간 ITS*(Intelligent Transport Systems, 지능형 교통체계)·대중교통 분야 등의 인프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.

* 자동차, 도로와 같은 교통수단·시설에 첨단기술을 적용하여,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을 증진하는 교통체계로, 최근 자율주행차 인프라 보급으로 확대 중

- 어 차관은 “60여 개 국가와 ITS 협력을 진행한 우리나라의 풍부한 경험은 폴란드의 도로·철도 교통 지능화에 기여할 것”이라면서, “대중교통 분야에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, 전국호환교통카드 구축 경험도 폴란드와 적극 공유하고 싶다”고 덧붙였다.
- 이에 라파엘 베버 차관은 “최근 한-폴란드 간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, ITS와 항공 협력도 강화되기를 기대한다”면서, “대중교통 분야는 한-폴란드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,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자”고 제안했다.
- 같은 날, 어 차관은 국제철도협력기구(OSJD) 수이리쨍(Sui Ruizheng) 부위원장을 만나, 올해 6월 부산에서 열리는 장관회의*(6.13~6.16)의 성공적 개최와 국제철도운송협정** 가입에 OSJD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다.
 - * OSJD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논의하고, 회원국 간 최종결의문을 채택하는 회의
 - ** OSJD 회원국 철도구간에서 화물과 여객 운송 관련, 업무절차 및 표준을 규정
- 이 자리에서 어 차관은 “부산은 유라시아 철도 시작점이자 아름다운 관광지로서, 각국 대표단을 적극 환영한다”면서, “우리나라는 국제철도운송협정 가입 관련 내부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, OSJD 차원의 협조도 당부한다”고 밝혔다.
- 이에 수이리쨍 부위원장은 “OSJD 본부도 부산 장관회의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”하며, “이번 장관회의에서 한국이 국제철도운송협정에 가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고 화답했다.
- 어 차관은 “최근 폴란드는 교통,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중요 국가”라고 평가하고, “풍부한 경험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폴란드 시장에 다수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2023. 3. 6.

국토교통부 대변인